

군산시 내년도 '살림 늘리기' 총력

문동신 시장, 현안해결·국가예산 확보 분주 중앙 부처 방문... 주요사업 협조·지원 당부

군산시 문동신 시장은 25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군산전북대병원건립의 정상추진과 '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문동신 시장은 해당 사업별 관련부처를 방문, 현재 심의중인 2018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항 전망타워 건설(5억),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7억), 국도4호선 잔여구간 개설(50억), 새만금 남북 2축을 비롯한 여러 새만

금 관련 사업(5,600억) 등이다.

또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기재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당 관계관들을 만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을 당부했다.

문동신 시장은 "무더운 여름철이고 휴가철이지만 국가예산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는 만큼 2018년 국가예산이 목표액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전라북도와 공조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문동신 군산시장은 25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군산전북대병원건립의 정상추진과 '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미래 5년 정보화 추진 로드맵 만든다

익산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정보화 미래 비전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2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철모 부시장과 부서 주무계장 등 40여명은 '익산시 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의견수렴과 세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익산시 정보화기본계획은 익산시 정보화추진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용역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익산시 정보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빅데이터, AI(인

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정보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보화사업 발굴 및 지역특성과 중·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보화 수행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철모 부시장은 "이번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향후 5년간의 익산시 정보화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긴 가뭄에 장마·폭염까지... 벼 병해충 비상

군산시, 개체수 급증 예상 이달 말부터 예찰반 투입 농업인에 초동 방제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최근 장마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벼 병해충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병해충 예찰과 초동 방제에 주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7월

17일부터 실시한 무인공중포충망 및 상습발생지 병해충 예찰결과, 흰등멸구 및 애벌레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벼멸구도 비례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 상태에 따라 개체수 역시 급증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등의 벼 해충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방제가 중요하다.

1차 방제는 밀도를 줄여주기 위하

여 7월 하순~8월 상순까지 벼이삭이 나오기 전에 도열병 및 잎집무늬마름병을 포함한 병해충방제와 함께 종합방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기압골을 타고 날아온 멸구류 및 나방류 해충들이 계속되는 고온으로 세대가 단축되고 번식이 왕성해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큰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이달 말부터는 전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벼 병

해충 예찰반을 편성 투입하여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인들도 수시로 자기 논을 관찰하여 병해충이 발견되는 즉시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인근시군과의 발생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예찰과 적기방제 지도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여름과학 캠프로 '호기심 쑥쑥'

군산, 내달 17일까지 4주간 초·중학생 대상 운영

군산시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4주간 전북 소재 초·중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여름과학캠프('2017 여름 리틀 아인슈타인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4차 산업 관련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 관심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단위로 로봇 교육, VR 교육, 드론 교육, 3D 프린팅 교육이 차례로 실시되며, 프로그램별로 월화반과 수목반 2개반으로 나뉘어 각 6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당초 반별로 15명씩 총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조기에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수업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집인원을 늘려 총 180명이 이번 여름과학캠프에 참여하게 됐으며 참가비는 프로그램당 3만원, 전체 프로그램 참가 시에는 1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참가자의 절반이상 이 군산시의 지역의 학생일 정도로 과학 체험 프로그램에 목말라 하던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놀랍다"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과학캠프 후에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차세대 기술 기반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장현 기자

삼복더위 보양식엔 '하림 삼계탕'

닭가슴살로 칼로리 줄이고 1인분 포장으로 간편성 높여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혼밥족과 1~2인 가구를 위해, 저지방·고단백 닭가슴살을 사용해 맛과 영양을 살리면서 조리과 섭취의 간편성을 높인 닭가슴살 삼계탕' 2종과 '삼계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삼계탕의 맛과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 고단백 저지방 닭가슴살로 만들어 칼로리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일일이 뼈를 발라내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더러,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완성돼 혼밥족이나 1~2인 가구도 간편하게 보양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림 '닭가슴살 삼계탕'은 국내산 수삼 한 뿌리와 닭가슴살을 통째로 넣었으며, 찹쌀과 마늘, 대추 등을 넣고 푹 끓여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일품이다. 전자레인지에 조리 가능한 용기에 1인분씩 포장하

여, 무더위에 불 앞에서 복잡한 조리과정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보양식을 즐길 수 있다.

하림 '닭가슴살 삼계탕'은 냉장과 냉동 제품 2가지로 출시되며, 냉장 보관용 바로 먹는 닭가슴살 삼계

탕'은 전자레인지에 4분, 냉동 보관용 '부드럽고 촉촉한 닭가슴살 삼계탕'은 전자레인지 10분만 가열하면 영양만점 보양식이 완성된다.

하림 '삼계죽'은 국내산 닭고기와 수삼을 진하게 끓여낸 닭육수와 함께 끊어 끓고 진한 맛이 특징이다. 또한 스팀살균 방식으로 일반 진공포장 레토르트 제품에 비해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한다.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혼밥족이나 바쁜 직장인의 아침 대용식으로 안성맞춤이다.

하림 '닭가슴살 삼계탕'은 CU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며, 하림 '삼계죽'은 오는 25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익산 역사문화 시티투어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단장 이선호)는 익산시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내년 전국체육대회 선수단과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25일 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시민서포터즈 30여명은 이날 백제무왕과 왕비의 묘로 추정되는 쌍릉을 시작으로 왕궁리 유적, 보석박물관, 미륵사지까지의 코스를 전문 문화해설사와 동행해 지역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둘러보며 자부심을 가졌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서포터즈들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놓치지 않고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지역의 역사를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호 단장은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전국체육대회에 방문하는 선수와 방문객들에게 익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서포터즈는 각종 전국대회 행사에 참여해 '2018 전국체전'을 홍보하고, 체전 개최 후에는 응원활동과 경기장 안내, 홍보 등을 진행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